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진로의식 성숙

김영희¹, 김경은^{2*}, 최정현³

¹동명대학교 간호학과, ²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³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and career maturity amongst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Young-Hee Kim¹, Kyoung-Eun Kim^{2*} and Jung-Hyun Choi³

¹Department of Nursing, Tongmyo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³Department of Nursing, Namseou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의식 성숙 정도를 파악하고,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진로의식 성숙에서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진로 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 개발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6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23명이다. 대학생들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관적 의사결정, 의존적 의사결정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의식 성숙에서 스스로 진로를 정하는 진로 독립성, 진로 관여성은 높는데 비해 직업 선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진로 타협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진로의식 성숙에서는 2, 3학년 에 비해 1, 4학년이 진로 결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진로의식 성숙에서도 상류층은 하류층에 비해 진로 결정성이 높았으나 진로 독립성은 낮았다.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진로의식 성숙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 집단이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 집단에 비해 진로 독립성이 높고 직업 선택의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진로의식 성숙의 차이를 보여 진로 지도에서의 의사결정 유형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으며, 더불어 대학교 취업 교육 현장에서 진로의식 성숙을 함양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university student's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for example, gender, grade, and SES) and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A scale measuring the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Harren, 1984) and career maturity (Crites, 1978) was administered to 223 university students around the capital cit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ronbach's α tests, means, standard deviations, One-way MANOVAs, and Multiple Discriminant Analy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as not significant difference by gender in career maturity. Bu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grade and SES in career maturity. Freshmen and Senior exhibited higher career decision-making attitude than sophomores and juniors. High-SES group showed higher career decision-making attitude and lower career independence.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in career maturity. 51.1% of our samples were rational decision-making styles, 30.0% of our samples were intuitive decision-making styles, and 18.8% of our samples were dependent decision-making styles. Undergraduate students with rational decision-making styles showed more positive career choice behavior and higher career independence than undergraduate students dependent decision-making styles.

Key Words : Undergraduate student, Career decision making style, Career maturity

*교신저자 : 김경은(leejay48@chol.net)

접수일 11년 01월 06일 수정일 (1차 11년 02월 07일, 2차 11년 02월 16일, 3차 11년 02월 16일) 게재확정일 11년 03월 10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지식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직업세계가 더욱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직업세계의 변화는 대학생들의 진로선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진로(career)란 개인의 생애를 통한 직업발달과 그 과정 및 내용을 가리키는 용어로 직업(vocation)보다 포괄적 의미를 말한다[1].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2년 기준으로 20-24세 청소년의 직업에 관한 고민은 8.6%이었으나 2008년에는 41.6%로 증가하였다[2,3]. 이는 직업을 최대 고민으로 선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이 장래 및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적성과 흥미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대학 입학만을 위한 입시위주 교육을 받은 오늘날의 대학생들은 입학 후 전공에 대한 불만족이나 부적응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갈등, 불안, 가치관 혼란 등 자신의 진로를 뚜렷하게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4]. 대학생들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5]이며 올바른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문제는 대학생들에게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진로인식이나 진로계획 없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6],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거나 진로결정을 했더라도 자신에 대한 이해 없이, 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또는 부모의 요구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많다[7]. 또한 대학생의 16.9%가 진로 선택 시 어려운 점으로 자기정보와 전공 및 직업정보의 부족을 들고 있다[8]. 따라서 적합한 진로선택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인식, 즉 '직업적 자아주체성의 형성'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제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진로의식성숙은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현실적이고 적절한 선택을 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들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 준비의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9]. 진로의식이란 진로의식, 탐색 및 결정 등 개인의 진로발달단계에서 얼마나 자신을 잘 이해하고 진로계획, 진로결정 및 행동을 잘 하는가에 대한 개인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진로 및 직업선택과 관련된 관심, 준비 정도에 대한 태도의 성숙 수준은 자신의 결정 및 선택에 대한 확신정도를 나타내는 효능감 수준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10]. 진로의식성숙은 진로발달의 핵심요인으로서 진로의식성숙도가 높을수록 직업에 대한 준비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진로의식성숙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진로의식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진로의식성숙수준에서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여자에 비해 남자의 진로의식성숙도가 높다는 연구결과[11], 남녀 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12], 남자에 비해 여자의 진로의식성숙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들이[13,14] 상충됨에 따라 성별에 따른 진로의식성숙에서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도 개인의 진로의식성숙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직업지위, 소득 등이 높을수록 자녀의 진로의식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진로의식성숙도의 전체점수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진로의식성숙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 즉 진로결정, 진로독립, 진로타협, 직업선택의 태도, 진로관련성 등과 같은 세부적인 측면에서 사회계층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계층에 따른 진로의식성숙 하위군에서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진로의사결정은 다양한 선택시점에서 개인의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사용되는 의사결정과정[16] 또는 어떤 문제 상황이나 장면에 처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미래를 예측하여 자신의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문제의 대안을 선택, 결정하는 과정이다[17]. 진로의사결정유형은 여러 학자에 의해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Harren[18]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의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전략 또는 정의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정도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도에 기초하여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합리적 의사결정유형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가 지는 유형이다. 직관적 의사결정유형은 합리적 의사결정유형과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지만 정보탐색이나 논리적인 평가를 충분히 하지 않고, 의사결정 시 정서적 자각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의존적 의사결정유형은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타인이나 외부로 돌리며 결정을 미루려는 특징을 나타낸다. 진로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의사결정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높고[19], 자아정체감의 주체성, 목표지향성, 미래 확실성이 높을수록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1]. 또한,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진로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23].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및 진로의식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24-27]. 이처럼 진로의사

결정유형은 개인의 진로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라 진로성숙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진로를 발견하고 준비해 나가기 위한 진로의식성숙은 매우 복잡하고 힘든 일이므로 적절한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능력을 증진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8]. 현재 진로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 대학 내 취업정보센터와 학생생활연구소 등을 갖추고 진로 지도를 하고 있으나 실제 취업정보제공이나 단순한 심리검사의 실시와 해석이 대부분이며 시기도 취업에 임박하여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직업의 이해 및 탐색, 진로계획 및 관리능력 함양을 위한 지도가 대학원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29].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의식성숙의 경향을 알아보고, 성별, 학년, 사회계층에 따라 진로의식성숙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후, 의사결정유형에 따라 진로의식 성숙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의식성숙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 및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진로의식성숙과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의식성숙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진로의식성숙 하위요인군에서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유형 집단에 따라 진로의식성숙 하위요인군에서의 차이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의식성숙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및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진로의식성숙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 대상자는 P시, U시, K도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교 6개교를 선정하여 총 6개 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년기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면서 스스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로 이 시기의 미래에 대한 진로의사결정이나 진로계획은 이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교육을 받은 연구원이 2010년 5월에서 6월까지 해당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자기평가기입법(self administration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응답 즉시 회수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233부 중에서 부실 기재한 자료를 제외한 223부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수는 G power program(Erdfelder, Faul & Buchner, 1996)[30]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변량분석에서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1, 검정력 0.95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 수로 권고한 108명보다 많아 충족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P시, U시, K도에 소재한 6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23명이다. 이 중 남학생이 43명, 여학생이 180명이었고 연령의 범위는 만 17세~45세이고 평균연령은 20.56(SD=2.70)이다. 학년을 살펴보면, 1학년에 33.6%, 2학년에 13.6%, 3학년에 38.1%, 4학년에 15.2%를 차지하였다. 사회경제적 수준 척도는 학력, 수입, 직업 등으로 측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구원 전체 수입으로 구분하였다. 2010년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근로자 가구의 전국 월 평균 가계수입인 4,174,197원으로 5분위수 중 3, 4분위 사이에 해당됨으로 이를 고려하여 1,2 분위는 하, 3,4 분위는 중, 5분위는 상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상류층이 1.8%, 중류층이 76.2%, 하류층이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표 1】 일반적 특성 (n=223)

일반적 특성	범주	n(%)
성별	남학생	43(19.3)
	여학생	180(80.7)
학년	1	75(33.6%)
	2	29(13.6%)
	3	85(38.1%)
	4	34(15.2%)
사회경제적수준	상	4(1.8%)
	중	170(76.2%)
	하	49(22%)

2.3 연구도구

1)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의사결정유형은 개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선호하는 접근방식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유형은 자신과 상황에 대처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해 나가며 의사결정의 책임은 자신이 지는 유형이다. 직관적 의사결정유형은 합리적 유형과 같이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만 정보탐색행동, 대안들에 대한 논리적인 평가를 거의하지 않고, 의사결정의 기초로써 환상의 사용, 현재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서적 자각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의존적 의사결정유형은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타인, 외부로 돌리며 결정을 마무리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Harren[31]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진로결정척도(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 ACDM)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결정유형검사를 고향재[7]가 번역하고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 등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10문항 씩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진 4점 리커트 척도이다. 합리적 유형 문항의 예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나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이고, 직관적 유형 문항의 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거나 검토를 하는 과정을 갖기보다,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대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자주 있다”이며, 의존적 유형 문항의 예는 “대개의 경우 나는 주위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하위유형에 대한 점수를 계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유형을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유형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는 합리적 유형은 .79, 직관적 유형은 .76, 의존적 유형은 .83이었다.

2) 진로의식성숙

진로의식성숙이란 개인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자신과 직업세계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적응해 가는 준비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진로의식성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는 Crites[32]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CMI(Career Maturity Inventory)의 태도측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 진로의식성숙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33]. 이 검사지는 진로결정성 7문항, 진로독립성 9문항, 진로타협성 7문항, 직업선택의 태도 5문항, 진로관여성 2문항으로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에 1점, ‘아니다’에 0점으로 채점하였으며 부정문항은 역문항 처

리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0이었다. 진로 결정성은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안정감과 일관성의 태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낮은 점수는 자신의 진로문제에 대해 어떠한 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어 혼란을 경험하는 것이다. 진로독립성은 자신이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인가 또는 의존적인가를 나타내는 정도이고 진로타협성은 자신이 진로선택시 욕구와 현실을 얼마나 잘 타협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직업선택의 태도는 자신이 진로선택시 일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에 있어서 선호도와 진로선택에 필요한 사전이해와 준비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점수는 진로선택에 필요한 준비를 잘 하는 것을 의미하고, 낮은 점수는 준비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관여성은 자신이 진로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관여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2.4 연구 분석방법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의식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성별, 학년, 사회계층에 따라 진로의식 성숙 하위요인군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One-Way MANOVA를 실시하였으며 추후검증으로 다중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 집단에 따라 진로의식성숙 하위요인군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One-Way MANOVA를 실시하였으며 추후검증으로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를 구하였다. 이들 자료는 SPSS 1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의식 성숙 정도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진로의식성숙 정도를 살펴보면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유형을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합리적 의사결정(M=2.63, SD=.46)에 비해 직관적 의사결정(M=2.36, SD=.49)과 의존적 의사결정(M=2.10, SD=.52)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점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직관적 의사결정, 의존적 의사결정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진로의식성숙을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진로독립성(M=.63, SD=.23), 진로관여성(M=.62, SD=.18),

진로결정성(M=.61, SD=.30)에 비해 직업선택의 태도(M=.51, SD=.23), 진로타협성(M=.49, SD=.22)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의 진로의식성숙에서 스스로 진로를 정하거나 자신의 진로에 관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직업선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진로타협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진로의식성숙 (n=223)

변인	범주	M(SD)
진로의사결정유형	합리적	2.63(.46)
	직관적	2.36(.49)
	의존적	2.10(.52)
진로의식성숙	진로결정성	.61(.30)
	진로독립성	.63(.23)
	진로타협성	.49(.22)
	직업선택의 태도	.51(.23)
	진로관여성	.62(.18)
	진로의식성숙총점	.59(.16)

3.2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진로의식성숙에서의 차이

3.2.1 성별에 따른 진로의식성숙에서의 차이

MANOVA 실시의 기본가정인 다변량 정규분포성과 공분산행렬에 대한 Box의 동일성 검정 결과, 종속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이루고, 두 집단 간 공분산행렬의 동일성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진로의식성숙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진로결정성, 진로독립성, 진로타협성, 직업선택의 태도, 진로관여성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진로의식성숙 하위요인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는 Hotelling's trace=.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 이는 성별에 따라 진로의식성숙 하위요인 간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표 3] 성별에 따른 진로의식성숙의 평균 (n=223)

범주	진로의식성숙									
	진로 결정성		진로 독립성		진로 타협성		진로의 식태도		진로 관여도	
	M	SD	M	SD	M	SD	M	SD	M	SD
남학생	.65	.31	.72	.21	.52	.20	.59	.24	.67	.19
여학생	.59	.31	.64	.24	.48	.23	.49	.23	.62	.18
total	.61	.30	.66	.24	.49	.22	.51	.24	.63	.18

[표 4] 성별에 따른 진로의식성숙의 일원다변량분석 (n=223)

종속변수	Source	Hotelling's trace	SS	df	MS	F	p	
진로의식성숙	성	.04	진로결정성	.12	1	.12	1.26	.26
			진로독립성	.26	1	.26	4.74	.03
			진로타협성	.06	1	.06	1.20	.28
			직업선택의 태도	.34	1	.34	6.20	.01
			진로관여성	.10	1	.10	3.40	.07

3.2.2 학년에 따른 진로의식성숙에서의 차이

MANOVA 실시의 기본가정인 다변량 정규분포성과 공분산행렬에 대한 Box의 동일성 검정 결과, 종속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이루고, 네 집단 간 공분산행렬의 동일성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진로의식성숙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진로결정성은 4학년이 가장 높고, 2학년이 가장 낮으며, 진로독립성은 2학년이 가장 높고 4학년이 가장 낮으며, 진로타협성은 1,3학년이 가장 높고 2학년이 가장 낮으며, 직업선택의 태도는 3학년이 가장 높고 2,4학년이 가장 낮았으며, 진로관여성은 4학년이 가장 높고 1학년이 가장 낮았다.

대학생들의 학년에 따라 진로의식성숙의 하위요인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 학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는 Hotelling's trace=.1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5,635 =1.69, p<.05). 이는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추후검정으로 종속변인의 어떤 하위요인에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학년에 대한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와 같다. 학년에 대한 판별분석결과 한 개의 유의한 함수가 산출되었다. 유의도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제1 판별함수의 Wilk's Lamda= .89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는 판별함수상의 점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수가 가장 많이 기여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표준화계수가 크면 클수록 그 변수의 기여도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표 7을 살펴보면, 진로결정성(1.03)이 집단분리에 크게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네 집단중심점(group centroid)을 살펴보면 1학년은 .21, 2학년은 -.38, 3학년은 -.21, 4학년은 .38로, 1, 4학년과 2, 3학년 간에 진로의식성숙에서 차이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특히, 1학년과 4학년이 2,3학년에 비해 진로결정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3학년에 비해 1,4학년이 진로결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학년에 따른 진로의식성숙의 평균 (n=223)

범주	진로의식성숙									
	진로 결정성		진로 독립성		진로 타협성		진로의식 태도		진로 관여도	
	M	SD	M	SD	M	SD	M	SD	M	SD
1학년	.65	.25	.64	.22	.50	.23	.51	.24	.60	.17
2학년	.53	.33	.70	.24	.46	.16	.48	.21	.65	.14
3학년	.57	.34	.68	.24	.50	.21	.52	.25	.61	.20
4학년	.67	.26	.61	.24	.47	.26	.48	.22	.66	.18
Total	.60	.31	.66	.24	.49	.22	.51	.24	.62	.18

[표 6] 학년에 따른 진로의식성숙의 일원다변량분석 (n=223)

종속변수		Source	Hotelling's trace	SS	df	MS	F	p
진로의식성숙	진로결정성	학년	.12*	.58	3	.19	2.07	.10
	진로독립성			.21	3	.07	1.27	.28
	진로타협성			.06	3	.02	.40	.75
	직업선택의 태도			.06	3	.02	.36	.79
	진로관여성			.13	3	.04	1.31	.27

* p<.05

[표 7] 진로의식성숙의 학년 간 차이를 판별하는 판별함수의 표준화 계수 (n=223)

진로의식성숙 요인	표준화계수
	함수 1
진로결정성	1.03
진로독립성	-.72
진로타협성	.08
직업선택의 태도	-.26
진로관여성	-.08

3.2.3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진로의식성숙에서의 차이

MANOVA 실시의 기본가정인 다변량 정규분포성과 공분산행렬에 대한 Box의 동일성 검정 결과, 종속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이루고, 세 집단 간 공분산행렬의 동일성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진로의식성숙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진로결정성, 직업선택의 태도와 진로관여성은 상류층이 가장 높고, 하류층이 가장 낮으며, 진로독립성과 진로타협성은 하류층이 가장 높고 상류층이 가장 낮았다.

대학생들의 사회계층에 따라 진로의식성숙의 하위요인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9,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는 Hotelling's trace=.0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0, 426=1.87, p<.05). 이는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추후검증으로 종속변인의 어떤 하위요인에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회계층에 대한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사회계층에 대한 판별분석결과 한 개의 유의한 함수가 산출되었다. 유의도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제1 판별함수의 Wilk's Lamda= .92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는 판별함수상의 점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변수가 가장 많이 기여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표준화계수가 크면 클수록 그 변수의 기여도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표 10을 살펴보면, 진로독립성(.71)과 진로결정성(-.61)이 집단 분리에 크게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세 집단중심점(group centroid)을 살펴보면 상류층은 -.99, 중류층은 -.11, 하류층은 .47, 상류층과 중류층, 하류층 간에 진로의식성숙에서 차이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상류층과 하류층 간에 진로독립성과 진로결정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류층은 하류층에 비해 진로독립성은 낮으나 진로결정성이 높다.

[표 8]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진로의식성숙의 평균 (n=223)

범주	진로의식성숙									
	진로 결정성		진로 독립성		진로 타협성		진로의식 태도		진로 관여도	
	M	SD	M	SD	M	SD	M	SD	M	SD
상	.72	.15	.55	.27	.31	.12	.60	.28	.64	.18
중	.62	.30	.64	.23	.48	.22	.51	.23	.63	.17
하	.52	.32	.70	.24	.53	.22	.49	.25	.58	.22
Total	.60	.30	.65	.23	.43	.22	.51	.23	.62	.28

[표 9]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진로의식성숙의 일원다변량분석 (n=223)

종속변수		Source	Hotelling's trace	SS	df	MS	F	p
진로의식성숙	진로결정성	사회경제적 수준	.09*	.42	2	.21	2.27	.11
	진로독립성			.17	2	.08	1.52	.22
	진로타협성			.20	2	.10	1.96	.14
	직업선택의 태도			.05	2	.02	.41	.66
	진로관여성			.10	2	.05	1.52	.22

* p<.05

[표 10] 진로의식성숙의 사회계층 간 차이를 판별하는 판별함수의 표준화계수 (n=223)

진로의식성숙 요인	표준화계수
	함수 1
진로결정성	-.61
진로독립성	.71
진로타협성	.48
직업선택의 태도	-.09
진로관여성	-.42

3.3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유형 집단에 따른 진로의식성숙에서의 차이

대학생들을 주요한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라 진로의사결정유형의 하위집단 중 하나로 구분하였다.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유형은 합리적 의사결정집단 114명(51.1%), 직관적 의사결정집단 67명(30%), 의존적 의사결정집단 42명(18.8%)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과반수가 합리적 의사결정집단이었고, 그 다음이 직관적 의사결정집단, 의존적 의사결정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유형 집단에 따른 진로의식성숙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진로결정성, 진로독립성, 진로타협성, 직업선택의 태도와 진로관여성 모두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유형이 가장 높고, 의존적 의사결정유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라 진로의식성숙의 하위요인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2, 진로의사결정유형 집단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는 Hotelling's trace=.1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0, 426=3.15, p<.01). 이는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 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추후검증으로 종속변인의 어떤 하위요인에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진로의사결정유형 집단에 대한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대한 판별분석결과 한 개의 유의한 함수가 산출되었다. 유의도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제1 판별함수의 Wilk's Lamda= .87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는 판별함수상의 점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수가 가장 많이 기여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표준화계수가 크면 클수록 그 변수의 기여도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표 13을 살펴보면, 직업선택의 태도(.52)와 진로독립성(.48)이 집단분리에 크게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세 집단중심점(group centroid)을 살펴보면 합리적 의사결정

집단은 .32, 직관적 의사결정집단은 -.13, 의존적 의사결정집단은 -.65, 진로의사결정유형 집단 간에 진로의식성숙에서 차이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특히 합리적 의사결정집단과 의존적 의사결정집단 간에 직업선택의 태도와 진로독립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합리적 의사결정집단이 의존적 의사결정집단에 비해 직업선택의 태도가 긍정적이고 진로독립성이 높다.

[표 11] 의사결정유형집단에 따른 진로의식성숙의 평균 (n=223)

의사결정유형	진로의식성숙									
	진로결정성		진로독립성		진로타협성		진로의식태도		진로관여도	
	M	SD	M	SD	M	SD	M	SD	M	SD
합리적	.67	.30	.71	.23	.51	.23	.57	.23	.66	.16
직관적	.57	.29	.66	.20	.46	.22	.47	.24	.61	.17
의존적	.47	.30	.54	.25	.48	.22	.40	.22	.56	.21

[표 12] 의사결정유형집단에 따른 진로의식성숙의 일원다변량분석 (n=223)

종속변수		Source	Hotelling's trace	SS	df	MS	F	p
진로의식성숙	진로결정성	의사결정유형	.15*	1.34	2	.67	7.50	.00
	진로독립성			.84	2	.42	8.02	.00
	진로타협성			.07	2	.04	.72	.48
	직업선택의 태도			1.10	2	.55	10.47	.00
	진로관여성			.27	2	.13	4.24	.01

* p<.05

[표 13] 진로의식성숙의 의사결정유형집단 간 차이를 판별하는 판별함수의 표준화계수 (n=223)

진로의식성숙 요인	표준화계수
	함수 1
진로결정성	.35
진로독립성	.48
진로타협성	-.14
직업선택의 태도	.52
진로관여성	.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의식

성숙의 정도를 파악하고, 일반적인 특성 및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진로의식성숙에서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여기서 나타난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의식성숙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대상자들의 의사결정유형은 합리적 의사결정이 2.6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의존적 의사결정이 2.10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김명아 등의 연구[34]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2.92점으로 가장 높았고 의존적 의사결정이 2.32점으로 낮았고, 고향자의 연구[35]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유형이 2.91점, 의존적 의사결정유형이 2.33점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현재의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의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보다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편임을 시사한다.

둘째,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진로의식성숙 하위요인군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진로의식성숙 하위 요인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진로결정성, 진로독립성, 진로타협성, 직업선택의 태도, 진로관여성의 평균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관여성에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유순화 등의 연구결과[36], 진로독립성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기학 등의 연구결과[37]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 양대석 등의 연구[38-40]에서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진로의식성숙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에서 성별 간에 차이가 없었다는 Super & Nevill의 연구[40]와 유사하다. 이는 남성 중심의 직업관을 탈피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남녀모두 직업선택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여학생의 진로의식성숙 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시에도 성역할에 따른 전통적인 직업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직업 탐색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이 자신의 흥미 및 관심사를 탐색하고 개발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년에 따라 진로의식성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성은 1, 4학년이 높고 2, 3학년에서 낮았다. 진로결정성은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직업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영역이므로 취업을 목전에 둔 4학년에게는 필연적인 결과로 보인다. 1학년의 진로결정성이 높은 것은 입학 초기라 충분한 직업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별 고민 없이 전공분야로 진로를 결정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2, 3학년이 되어 전공에 대한 이론지식과 현장실습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깊이 있는 직업 탐색이 이루어져 전공학문에 대한 불만족과 부적응을 경험하고 향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갈등, 불안이 생겨 직업 결정에 망설임이 나타난 결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개별학과와 대학의 취업정보센터 간의 상호 적극적인 연계과정을 통해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초기 동안 변화하는 직업세계 및 자신의 진로에 대해 충분히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예, 산학연계 프로그램, 현장실습, 직장체험 등)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진로지도프로그램 개발 시 이론적인 측면에 치중하기보다는 대학생들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실험 및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후배와의 만남을 통해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진로의식 성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성, 직업선택의 태도 및 진로관여성은 하류층이 가장 낮게 나오고 중류층, 상류층 순으로 높아졌다. 반대로, 진로독립성, 진로타협성은 하류층이 가장 높게 나오고 중류층, 상류층 순으로 낮아졌다. 이는 진로의식성숙 하위요인들이 사회경제적 수준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신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상태가 어려운 하류층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적성이나 취향보다는 보수 등의 경제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갈등 또한 높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진로결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직업선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진로관여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상류층은 진로독립성 및 진로타협성이 다른 계층보다 가장 낮게 나왔는데 이는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상류층의 부모가 하류층의 부모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치나 의지가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진로타협성 또한 낮아지기 때문이다. 대학생 가정의 월소득과 학생의 진로정체감 관계를 조사한 장지선의 연구[41]에서,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집단이 400만원 미만인 집단들 보다 진로정체감 폐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상류층의 부모가 하류층의 부모보다 자녀진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Dillard[42]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진로의식성숙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따라서 대학에서 진로상담을 실시할 때 상담 의뢰자의 경제상태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진로의식성숙은 이후의 성공적인 직업선택 및 직업만족도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하류층이라면 당장의 경제적인 요소보다는 본인의 적성이나 취향에 맞는 선택이 되도록 유도하고,

상류층이라면 부모의 영향을 배제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주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대학생들의 의사결정유형집단에 따른 진로의식성숙에서의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유형을 합리적 의사결정집단, 직관적 의사결정집단, 의존적 의사결정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합리적 의사결정 집단은 진로결정성, 진로독립성, 진로타협성, 직업선택의 태도 및 진로관여성 등 모든 면에서 진로성숙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의존적 의사결정집단은 진로결정성 및 진로독립성이 낮고, 직업선택의 태도 및 진로관여성도 낮은데 이는 합리적 의사결정유형이 의존적 의사결정유형보다 진로 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36,43,44].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자신과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 의사결정유형 집단은 진로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서 진로 성숙도가 높아지게 된다. 한편 의존적 의사결정집단은 자신이 가진 자원이나 잠재력을 활용하기 보다는 영향력 있는 타인에게 의존성을 보이며 스스로 결정내리고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 하기 때문에, 우유부단하고 진로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가 낮으며 직업선택의 태도가 부정적이 될 수 있다. Harren[31]도 합리적 의사결정은 직업선택과 관련된 진로결정과정과 직업성숙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의존적 의사결정은 진로결정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진로상담을 실시할 때 상담의뢰자의 진로의사결정유형을 먼저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라 진로의식성숙도의 하위요인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의존적 의사결정유형에 속하는 상담 의뢰자라면 가족이나 친구의 영향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주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는 자신의 성격,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개인 내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가정해 볼 때, 대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기 전 자기 스스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의식성숙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추후연구에는 대학생

의 내외통제소재, 효능감, 불안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대학생의 심리적인 특성 따른 진로의식성숙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대학생 진로의식성숙에 의사결정유형의 중요성이 밝혀진 만큼, 추후연구에서는 입학이후부터 졸업까지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진로의식성숙을 함양할 수 있는 취업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대상이 6개 대학의 대학생들로 제한되어 있고, 성별에서도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의 비율이 많았다. 또한 사회계층을 고려해 볼 때, 상류층의 비율이 다른 계층의 비율에 비해 상당히 적었다. 그런 면에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진로의식성숙의 차이를 보여 진로지도에서 의사결정유형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으며, 더불어 대학교 취업교육현장에서 진로의식성숙을 함양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Tolbert, E. L..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80.
- [2]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자료, 2002.
- [3]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자료, 2010.
- [4] 이병호, "대학에 진로지도활동에 관한 분석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5] 김현수, "대학생을 위한 진로상담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 교육심리연구, 제15권, 제4호, pp. 139-155, 2001.
- [6] 이종국, 동의대학교 진로개발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생인식 및 수요조사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8권, 제6호, pp.2537-2552, 2006.
- [7] 고향자,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8] 이은경,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9] 지용근, 김옥희, 양종국, "진로상담의 이해", 서울 : 동문사, 2005.
- [10] 이상애, 조현양,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 pp.101-124, 2007.

- [11] 김경령, 청소년기의 가정환경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12] 김관용, 중학생의 개인 및 가정특성이 직업적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13] 김상혁, 고등학생의 지역 및 계열에 따른 진로성숙도에 관한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14] 오송남,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도가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15] Lawrence, W., & Brown, D, An investigation of intelligence, self-concept, socioeconomic status, race, and sex as predictors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제9권, 제1호. pp.43-52, 1976.
- [16] Phillips, S. D., & PaziENZA, N. J, "History and theory of the assessment of career development and decision making", In W. B. & S. H. Osipow(Eds), Career decision making, Hillsdale, NJ:Erlbarn, 1988.
- [17] 이은경,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 및 진로 의식성숙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18] Harren, V. A,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Umphlished Progress Repor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1976.
- [19] 김정은, "남·여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의사결정",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20] 이현정,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통제소재 및 불안에 따른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21] 최정윤,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미결정 및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 [22] 박진희,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미결정 및 자아개념과의 관계",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23] 이은정,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의사결정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24] 임은미, 이명숙,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 분석, "학생상담연구", 제1권, pp.101-113, 2003.
- [25] 장범식, "체육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식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26] Chen, J. J, College students' self-esteem and career maturity : The mediating role of self-identify, "Chines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제18권, 제3호, pp. 372-373, 2010.
- [27] Man, W. C, Culture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and self-efficac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제57권, 제3호, pp. 365-378, 2000.
- [28] 김봉환, "학교진로상담", 서울 : 학지사, 2000.
- [29] 이윤성, 동상옥, 정윤아, 강창완, 김규곤, 대학(원)생 졸업직후 취업성공의 배경,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2권, 제3권, pp. 1523-1533, 2010.
- [30] Erdfelder, E., Faul, F., & Buchner, A. GPOWER:A general power analysis program. "Behavior Research Method, Instruments, & Computers", 제28권, pp. 1-11, 1996.
- [31] Harren, V. A,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Los Angeles ;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 1984.
- [32] Crites. J. O, "Career maturity inventory :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Monterey, CA:CBT/McGraw-Hill, Inc, 1978.
- [33] 김정혜,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성공회피동기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34] 김명아, 임지영, 김숙영, 김은정, 이종은, 고유경,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영향요인, "정신간호학회지", 제13권, 제4호, pp. 383-391, 2004.
- [35] 고향자,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 및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제1권, 제1호, pp. 109-124, 2000.
- [36] 유순화, 강승희, 윤경미 (2004)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수준 및 진로성숙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Vol. 5, No. 4, pp. 1111-1123.
- [37] 이기학, 송현정, 임희경, 전윤경,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기주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남녀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9권, 제2호, pp. 53-65, 2004.
- [38] 양대석, 최영렬, 태권도학과 재학생의 진로의식성숙도와 진로탐색 행동에 대한 연구, "태권도과학", 제2권, 제1호, pp. 21-29, 2009.
- [39] 백남석, 이보미, 체육계열 대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용인대학교 논문집", 제24권, pp. 1-16, 2006.
- [40] Super, D. E., & Nevill, D. D, Work role salience as a determinant of career maturity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제25권, pp. 30-44, 1984.
- [41] 장지선,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 및 애착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42] Dillard, J. M,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and self-concepts of suburban and urban middle and urban lower-class preadolescent black mal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제9권, pp. 311-320, 1976.

- [43] 오은경, “사회적지지와 의사결정유형, 진로성숙도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44] Blustein, D. L., Decision-making styles and vocational maturity: An alternative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제30권, pp. 61-71, 1987.

최 정 현(Jung-Hyun Choi)

[정회원]



- 1999년 3월 : 동경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석사)
- 2002년 8월 : 카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박사)
- 2004년 3월 ~ 2009년 2월 : 강원대학 간호학과 교수
- 2009년 3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 영 희(Young-Hee Kim)

[정회원]



- 1992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1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1년 3월 ~ 2010년 2월 : 춘해보건대학 간호과 교수
- 2010년 3월 ~ 현재 : 동명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간호, 건강증진, 보건교육, 노인간호,

<관심분야>

노인간호, 지역사회간호

김 경 은(Kyoung-Eun Kim)

[정회원]



- 1995년 2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정학과(아동학석사)
- 2007년 2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정학과(이학박사)
- 2007년 3월 ~ 2009년 2월 : 고려대학교 사회정서발달연구소 연구교수

- 2009년 3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인간발달, 창의성